

서해안의 觀光據點을 위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방향

기획조정팀장 이 인 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관광산업은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나가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는 인간의 관광활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3차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과 온천을 연계한 국민휴양관광지 확충, 백제문화권의 관광자원개발 지속 추진, 농·산·어촌 및 해양생태자원의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충청남도, 2002).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내 관광지 지정수는 2001년 현재 23개소에 13.195km²로 전국 면적 148,550km²의 11.7%로 해당하며 산악형, 내륙형, 내수면형, 해안형 등 다양한 자원유형별로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충남에서 지정된 관광지중에서 구드래, 태조산, 각원사, 곰나루, 금강하구둑 등 몇 개의 관광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60%이하로 개발이 추진되거나 관광지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개발을 착수하지 못하기도 하고, 개발이 중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해안시대를 대비하여 안면도에도 관광지를 지정하여 국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발의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안면도관광지는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개최로 73만명 목표에서 164만6천명이 방문, 228%를 초과 달성하는 성공적 개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의 급증 등 서해안의 관광환경의 변화는 서해안의 태안해안권에 거점 관광지를 조성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안면도 관광지는 접근이 양호해지고 이미지가 제고되어 관광지 개발조건이 양호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꽃박람회장의 활용과 안면도 관광지구의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가 지연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립 등이 제약조건이 되어 관광지 개발의 촉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지 개발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안면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촉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한다는 인식에서, 거점관광지 개발에 대한 제반이론을 고찰하고, 해안관광지 개발의 과제와 기존에 수립된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계획 추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관광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안면도 관광개발을 위한 거점관광개발 이론의 검토

관광개발(tourism development)의 정의는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관광상의 편의를 증진시켜 관광자의 유치와 관광소비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광개발의 대상이 되려면 과거에 존재했던 단순한 관광개발과 관광지 관리보다 더욱 균형있는 관광개발의 개념적 구성이 요구된다. 즉, 관광개발의 개념적 구성은 관광개발의 대상지역부문, 관광개발상의 공간관계, 그리고 관광지역의 발전형태(발전단계)는 세 가지로 요약되며, 이들 상호관계가 강조되어야 한다(前田勇, 1984).

특히, 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은 집중형·분산형 공간배치로 양분되는데, 관광공간분포의 집적정도에 따라 관광공간체계가 달리 형성된다. 관광공간의 배치론적 접근은 집중전략(concentration strategy), 분산전략(dispersion strategy), 그리고 조합전략(combination strategy)으로 나눌 수 있다(P. E. Murphy,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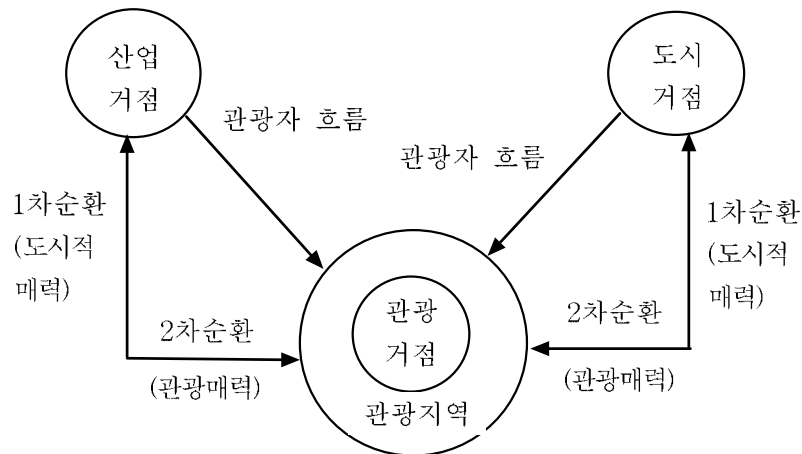
집중과 분산전략을 위한 거점관광개발에서 거점(centre ; pole)은 관광자 및 관광대상(관광자원과 관광시설) 집중으로 관광상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인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누릴 수 있는 관광중심지를 의미한다(S. Smith, 1983). 따라서 거점관광지 개발의 의미는 광의로 거점관광개발대상(관광단지, 위락단지, 그리고 도립, 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등)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는 것이고, 협의로는 거점관광개발대상의 특성을 살려 관광상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현재보다 나은 지역관광자의 여가·관광욕구의 충족,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효율적인 관광자원개발 수행(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기회의 확대, 체계적인 관광지 관리프로그램 구축, 그리고 관광시설의 다목적 활용 지원 등), 그리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거점관광개발은 ‘장소정체성(place-identity)’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관광을 위해 큰 역할을 한다. 장소정체성은 친숙한 환경에서의 추억으로부터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유지의 매우 능동적인 신념에 이르기까지 발전함으로써 결국 거점관광개발은 관광공급대상에 부여된 상징으로서의 관광자원개발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거점관광개발지역이 특정관광상품에 의해 특화되는 과정은 비교우위론적 입장에서 설명되어진다. 우선 거점관광개발지역이 다른 관광지역보다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공급대상 사이에서 지역관광활동이 능동적으로 조화·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거점관광개발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집단, 그리고 민간부문이 각각 또는 조합적으로 그들의 관광자원을 관리하고 적절히 확정된 관광지역 내에서 새로운 관광활동을 창출함과 동시에 관광지역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내생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점관광개발에서 조화·조정 과정은 관광자의 흐름이 여러 관광지역 또는 관광지구로 이루어진다. 관광수요시장도 여러 도시를 형성하며, 관광공급대상지역도 역시 여러 관광거점(tourist poles)을 가지게 된다. [그림 1]은 단일거점으로 단순화하여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관광자들은 물리적 또는 문화적 재균형을 위한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전형적인 관광지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 1] 관광수요시장과 관광거점의 조화·조정관계



한편, 거점관광개발은 관광지역에서 관광거점 자체가 가지는 내부적인 지역관광 성장 기능과 관광성장을 다른 관광지역으로 파급하는 외부적인 관광지 연계기능이 있는데, 두 기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관광성장을 유도하고, 관광성장잠재력을 다른 관광지로 확산시킨다. 둘째, 관광성장을 지속하는 규모의 경제성에 의한 공간적, 자원적 집적효과를 가진다. 셋째, 관광지의 고밀도 이용은 가격인하의 한 요인인 동시에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도 되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적인 관광지 관리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전체 관광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더욱 빠른 관광성장률을 가진다. 다섯째,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을 매우 높인다. 여섯째, 지역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지역 관광이미지를 특화 시킨다. 끝으로 관광성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관광지 마케팅전략을 수용한다.

한편, 관광개발형태별 모형을 살펴보면 첫째, 관광단지형은 개발목표로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별 관광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그리고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창출 등이 강조된다. 즉, 관광단지형은 개발의 공간적 범위가 넓고 개발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개발목표의 설정도 단순한 관광자원개발적 접근보다 지역발전적 효과에 초점을 둔 특화적 관광자원개발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의 관광단지형은 관광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광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지역의 고용·소득효과 및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등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강구되어야 한다(김홍운·김사영, 1996).

관광단지형의 개발주체는 지방자치단체주도형과 제3섹터방식이 적합하다. 관광공급대상요인은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에 기초한 관광공급요인과 관광시설의 적합성요인이 매우 중요시되며, 관광수요 시장요인은 여행동기와 여행거리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를 필요로 한다. 또한, 관광단지형은 개발접근방법상 개발기간이 장기적이고 개발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개발대상면적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간구조론적 접근에서는 배치론적으로나 발전론적으로 매우 많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공간배치론적으로 집중전략을 따르지만 단지내에서의 관광대상 배치는 분산입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자원이나 매력물은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있기보다는 모여 있거나 연계되어 있을 때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나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지역별 관광지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기간 상호 보완적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에서 반영하고, 지역내 전반적인 관광지 관리기능을 제고하도록 한다. 특히 관광지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광역권내에서 지역간 협동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광역관리체계 하에서는 각 관광지는 개발정도나 이용도에 따라 차별화가 이루어져 과도한 관광지의 지정이나 단위 관광지별 개발경쟁을 억제할 수 있어 환경훼손이나 시설의 사업성 증대차원에서도 유리하다. 일본의 고베시의 경우 관광시설의 개발은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관광과에서는 관광진흥 측면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홍보, 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인근의 세도나이가 전지역에 걸쳐 인접지역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1) .

관광개발에 있어서 집중과 분산전략은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집중개발에 기초한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은 규모의 경제 이점 및 확산효과를 가져오게 하며, 반면에 분산전략은 특정관광공급대상지역

에 더 이상의 개발을 억제하고 다양한 공간입지의 관광개발을 통해 특정 관광공급대상지역과 여타 외곽관광지가 계속 성장하도록 하는데 조합전략의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안면도와 같이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된 지역에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거점관광개발에 의한 접근 방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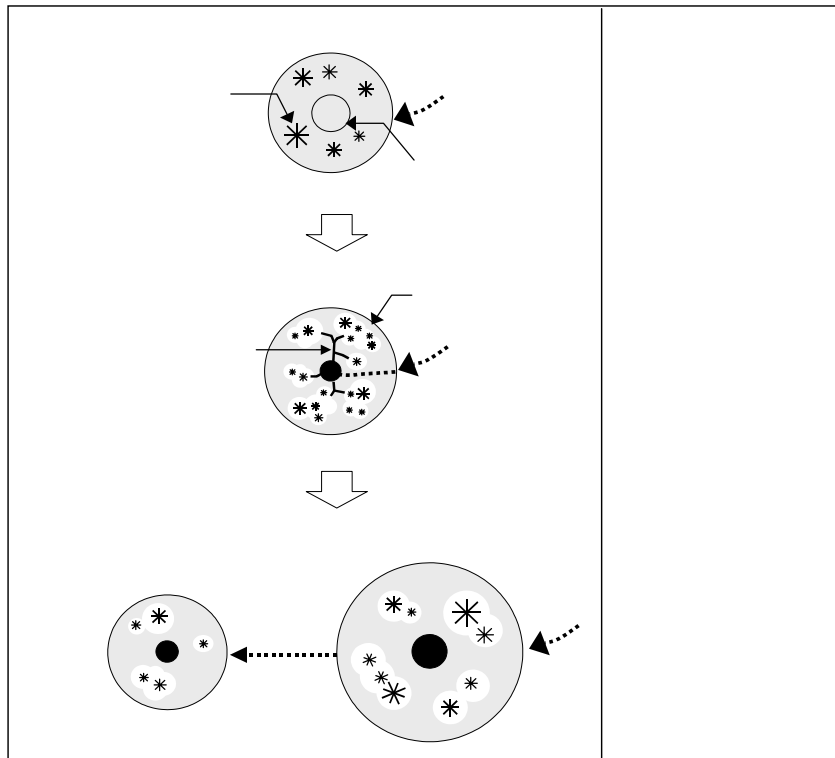
특히, 우리나라의 단위 관광지 개발계획에서는 주변의 타 관광지와의 광역적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일 관광지 중심의 시설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시설의 중복개발 및 과도한 시설개발로 관광객 저조에 따른 경제성 미흡으로 기존 관광지 투자의 기회는 물론 신규관광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국비 등의 분산지원으로 공공자금 지원의 효율성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는 계절성, 요일성 등으로 단순히 성수기를 중심으로 시설개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시 현재의 단일 관광지 중심의 과도한 시설계획에서 탈피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거점 지역에 관광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계절성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반면, 거점지역 또는 거점관광지 이외 지역에서는 기본적 편의시설만 소규모로 개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거점개발방식의 도입은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사업의 수익성을 증대하여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점개발 방식에 있어서 거점지역의 선정은 반드시 관광지일 필요도 없으며, 인근에 도시가 있는 경우 도시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면 도시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관광지에서는 비수기로 인한 시설의 遊休化를 방지할 수도 있다(국토연구원, 2001). 이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안면도는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꽃지지구를 중심으로 국제관광지를 조성중에 있고, 주변에는 각종 민박형 숙박시설과 휴양시설들이 관광개발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의한 관광지 개발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렇게됨으로써 국제관광지 조성지구를 집중지구로 하여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하는 허니포트형(honey-pot)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꽃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지가 관광핵심 거점이 되고 주변의 관광자원간의 연계망을 설정하여 주요 거점간을 연계하는 광역관광루트를 설정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역자원 특성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광개발의 접근개념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거점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 선정 절차도



자료 : 충청남도·국토연구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2001.

3. 안면도 국제관광지 촉진 방안

안면도 관광지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개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은 국제적 규모의 해양종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4계절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촉진의 기본방향은 관광개발과 관광지 계획이론과 해안관광지 개발이론,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의 분석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1) 안면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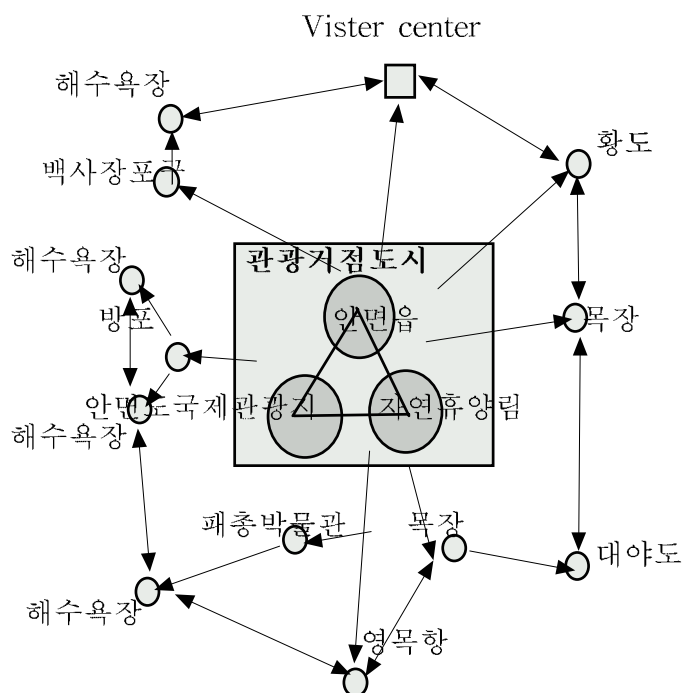
안면도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은 안면도 전체지역을 하나의 관광대상지로서 접근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면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집중과 분산이 조화된 관광지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안면도의 주변과 기능을 연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려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안면도의 관광시장에 적합한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인근의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 된 관광지를 개발하고, 안면도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① 집중과 분산이 조화된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계획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변의 타 관광지와의 광역적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사한 시설의 중복개발 및 과다한 시설개발에 의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여 집중과 분산을 조화시켜 개발하는 것이다.

[그림 3] 안면도 거점관광개발을 위한 접근개념도



따라서, 안면도는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된 꽃지지구를 중심으로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조성중에 있으므로 국제관광지 개발지를 집중지구로 하여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분산하는 허니포트형(honey-pot) 관광개발을 추진한

다. 특히, 안면도종합발전계획(1999)에서도 제안하고 있는바와 같이, 꽃지를 중심으로 한 안면도 국제관광지가 관광핵심 거점이 되고 인접해 있는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안면읍을 삼각축으로 연결하는 안면도 관광거점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항포구와 해수욕장, 목장, 갯벌, 섬, 문화유적지 등의 관광자원간의 연계망을 설정하여 주요 거점간을 연계하는 광역관광루트를 설정하여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이면서, 송림과 해안에 있는 지역특성의 자연·문화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관광상품화하여 마케팅 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 이미지를 제고하는 개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안면도의 관광이미지 제고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화훼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전시참가 32개국 178개 업체가 참가하고, 관람객은 72만명 목표에서 164만6천명이 방문하였으며, 수익은 217억원에 화훼수출 4,617천불을 가져다주는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는 꽃박람회의 성공을 연례적으로 지속화하면서 꽃과 자연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관광지 개발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계획 중 꽃지지구를 식물중심의 테마파크 지구로 개발하고, 여기에서 미니꽃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광장과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여 기존의 관광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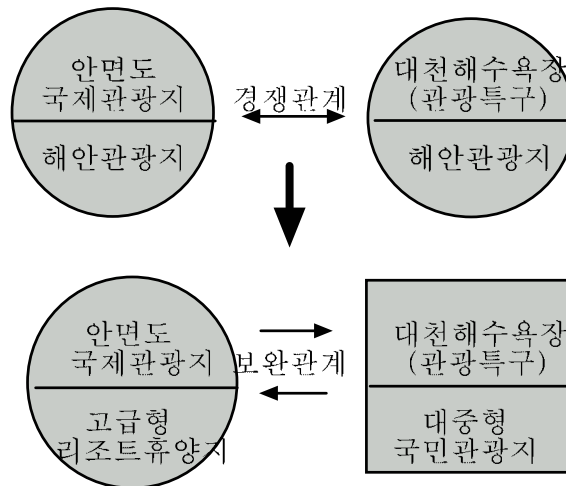
③ 안면도에 적합한 표적시장의 선정과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

최근 서해안권의 시·군별 관광객수에서는 보령이 14,104,100명 태안이 8,799,488명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안면도 국제관광지와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권에서 충청남도의 거점관광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곳 관광지가 동일한 해안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지로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합한 표적시장에 의한 고급형 리조트휴양지로서 차별화된 관광지로 보완관계의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보령-안면도간에 연육교가 건설될 경우 상호간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보완관계로 보령의 대중형 관광지와는 관광객 표적시장을 달리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기능과 시설을 도입하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면도 관광지는

고급형 리조트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고, 보령은 대중형 국민관광지로서 개발하여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의 차별화 된 관광지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안면도 거점관광개발을 위한 접근개념도



④ 안면도 다양한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와 이벤트 상품개발

안면도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자연휴양림, 항포구, 해수욕장, 기념물, 먹거리, 목장, 특산물, 섬, 등 다양한 관광상품과 꽃박람회, 대하축제, 황도붕기풍어제, 여름시인학교, 홍송축제 등의 이벤트 상품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현재는 개별 관광자원으로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 꽃 이벤트와 민속 및 자연자원 테마별로 거점관광지와 연계시켜 관광코스과 이벤트 상품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해안관광지로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방향

① 공공의 공간을 중시한 개발방식과 사업추진

국내에서의 해안관광지 개발패턴에서와 같이 해안관광지내 기존 국·공유지나 해안매립 또는 공유수면해제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민간에게 전부를

매각하는 사업방식은 지양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과 상호협력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공영개발의 사업방식보다는 높은 지속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해안부의 사유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자원의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민자와 외자의 참여를 통한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관광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지역민이나 지역관련단체 등에 토지를 임대하여 관광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은 당해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② 개방성을 중시한 해안환경과 경관보존형 관광지 개발

대천해수욕장 1지구와 같은 해변의 사유화에 의한 접근성 제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안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시킨 뒤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건축한계선을 해안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해변의 사유지내 건립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1층 평면부는 공공 공간화 하거나 오픈된 형식의 건축물을 권장토록 하여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해변토지 이용과 연계하여 규제토록 해야 하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도 일정간격 이상을 띄우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안의 과밀정도와 인공화를 예방토록 하고 그 간격을 시각통로로 활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안면도 관광지 계획에서 수립된 각 개발지구별로 해안선을 따라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해안선과의 거리를 고려, 완충녹지대로 방풍림지대를 조성하여 개발 추진 시 환경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③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지 개발지구의 도입기능 채택

해안관광지내에도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반시설들(도서관, 전시 및 박물관, 중소규모의 의료시설, 수족관 및 휴식공원 등과 같은 문화·복지시설 등)을 도입·개발한다면 외래방문객만을 위한 관광지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지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역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버타운지구의 이주민단지와 마린월드지구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위락 및 공공 자원기능이 일체화 된 혼합용도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안관광지내 도입되는 시설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안면도 해안지역의 특성과 배후시장의 시장조건을 고려하여 생태관광, 농어촌체험관광, 문화·역사관광, 노인휴양 및 회의산업과 같은 주제를 개발대상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킨다.

④ 지역특성과 연계하고, 환경특성을 중시한 토지이용계획 추진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시 해안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개발지구, 유보지구, 개발금지지구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안지역의 환경의 특성과 개발유형에 따라 해안 환경보존을 특별해변지구와 개발이 가능한 일반해변지구로 구분·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꽃지해수욕장의 제방과 내륙으로 연계되는 사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특별 해변지구로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해안관광지로서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기존 도입시설을 해변 안쪽으로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면도 관광지 해안선의 해수욕장은 제방설치에 의한 모래유실의 방지 및 복원 방법을 모색하고, 해안변에 사구가 형성된 지역에는 방풍림을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3)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제도적 추진방향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외자 및 민자유치, 환경문제, 지역주민 참여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조례를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상호간에 협력적인 추진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칭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실천적인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한다.

① 「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 추진

안면도 관광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자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사업참여에 관한 사항,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

업주체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가칭「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외자 및 민자유치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에 외자유치에 관한 내용과 같이 합하여 통합하여 추진한다.

②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서 안면도 관광개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 안면도 전체적인 지역개발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가칭「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회」로 설립·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 전문가, 지역단체와 주민, 환경단체, 지역관광협회 등이 참여되도록 한다.

이 단체에서는 안면도 지역 전체적인 관광지 사업의 추진과 개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③ 「안면도 관광지 투자지침서」 작성

안면도 관광지와 주변지역의 조속한 개발과 민자 및 외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면도 관광지 투자지침서를 작성하여 모든 관광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이는 가칭「안면도 관광지 촉진사업에 관한 조례」의 세부적인 실천지침으로 이러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추진할 경우 외자 및 민자유치에 의한 상호간의 계약과 이윤배분 등을 사업별로 협상하여 사전에 투자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5. 맺음말

문화관광의 시대에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관광거점 지역으로 국제적 규모의 해양종합리조트로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의 접근 개념과 개발의 추진방식의 전환과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안면도는 자연환경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문객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안면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곳인가에 집중된 관광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집중과 분산을 위하

여 안면도 국제관광지는 보령과 차별화된 리조트 휴양지 형태의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면도의 전지역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개별 관광자원을 분산시켜 관광상품화를 시도해야 환경이 보전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서해안의 거점관광지역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안면도 국제관광지가 맞고 있는 개발의 좋은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계획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여건과 앞으로의 변화에 적합한 개발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김홍운·김사영 공저, 관광개발론-지역개발적 접근, 형설출판사, 1996.
2. 문화관광부, 2001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3. 이인배, 충청남도 지정관광지 개발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0.
4. 임주환외, 관광지개발론, 백산출판사, 1998.
5. 윤양수, 지역개발측면에서 본 문화 관광사업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원, 2001.
6. 조재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 기본계획변경, 1997.
8. 충청남도, 안면도 종합발전계획, 1999.
9. 충청남도, 제3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2002.
10. 한국관광공사,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1993
11. 前田勇(編), 觀光概論, 東京 學文社, 1984.
12. 除野信道, 觀光社會經濟學, 東京 斗南印刷所, 1985.
13. Clare A . Gunn, Tourism Planning. 1988
14. P. E. Murphy, *Tourism : A Community Approach*, New York : Metheun, 1987.
15. S. Simith, *Recreation Geography*, London Longman, 1983.